

중단하라!

한반도 핵전쟁 위기 높이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



‘맞춤형억제전략’ = 전쟁억제가 아니라 전쟁 유발!



반종빈 기자 20130401
yonhap_graphics@트위터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구체적인 시나리오로까지 발전되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위기를 억제·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핵전쟁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공세 전략입니다.

국지도발대비계획

= 전면전 가능성 높이는 위험한 계획!

국지도발대비계획은 국지전이 발발할 경우 도발 원점은 물론 적의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 대응이자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키게 될 위험천만한 전략입니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유도, 흡수통일을 노린 북한 점령·안정화 작전연습까지



2010년,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는 통일부, 경찰청까지 동원되어 평양을 점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생포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북한 안정화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유도 및 안정화 작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올 초 한미당국이 합의한 '북한 변화 유도'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북한 점령 통치 등 흡수통일을 겨냥한 대북 적대적 성격의 훈련들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대결을 격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한반도 비핵화 · 평화협정 대화를!

남과 북의 신뢰를 구축하려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 중단해야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한편, 남북간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남과 북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어떤 한미연합연습보다도 공세적인 2014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중단하거나 방어 연습으로 전환,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공세적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5.24 조치를 해제하여 남북, 북미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것만이 비정상적인 남북, 북미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분단과 대결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면, 남북 · 북미 · 6자회담 등 각급 대화를 재개하여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핵을 동시에 폐기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핑계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저지하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되어야
일본의 군국주의 야욕을 막아내고
동북아 평화 실현할 수 있어



박근혜의 통일대박?
북한변화유도, 흡수통일 노린다면
썩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평화와 통일을!